

3. 하나님이 빛으로 오심

모든 것은 근본이 있어야 한다. 신앙도 그렇고 신학이나 이념도 그렇다. 무엇이든지 근본이 밝혀져야 한다. 대개 엉터리는 근본이 가려져 있다. 근본을 모르고 논리만 들으니까 거기 속는 것이다. 논리는 얼마든지 옳은 논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근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을 보는 것도 근본을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데 근본을 떠나서 보면 아주 복잡하다. 아무리 공부해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근본을 모르면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작이 있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시작이 없다고 하고 모든 것은 연기(緣起)라고 한다. 인연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차이가 생긴다. 파도가 일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니까 연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딘가 시작이 있어서 파도가 이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시작을 부정해 버리면 인생은 허무해진다. 어떻게 들으면 합리적인 말 같고 알아듣기 쉬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혼미해져 버린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창세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은 옛날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계는 아주 혼란스럽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종규 형제가 신학서적을 많이 보고 사랑방에 쉬운 말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공부한 것을 요약해서 들을 수 있다. 철학박사가 신학 서적을 삼백 권 이상을 사다 놓고 읽었다고 한다. 신학 박사나 마찬가지로 나도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꼭 알아야 한다. 누가 천지를 창조했는가? 이것은 꼭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늘이나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문제고 우리 인생의 문제다.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일이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딘지 모르지만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것이다. 시작하신 이가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무것도 저절로 생긴 것은 없다. 아무 것도 모르는 세계에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없으면 진화론 같은 것이나 더듬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거기서 더듬어서 무엇이 나오겠는가?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사 그것이 옳다 해도 나에게 복이 안된다. 내가 아메바에서 진화했다면 무슨 복이 되겠는가.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어디로 가겠는가? 진화론이 설사 옳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되지 않은 이론이다.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를 알고 진화를 알겠는가? 어차피 모르면 우리에게 복된 것을 채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진화론도 가설에 불과하고 창조론도 가설에 불과하며 인연설도 가설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에게 복된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성경을 볼 때도 나는 복된 것만 본다. 복되지 않은 것은 봐야 머리만 복잡해지지 소용 없다. 어떤 사람은 많은 성경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서 아무 것도 추릴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 말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성경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별 것이 다 있는데 나에게 복될 것이 없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복될 것만 찾아야 되지 굳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신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하셨다(요 5:39). 아주 간단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요 5:40).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 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만 이것 저것 찾으며 “성경에는 이랬는데……, 성경에는 저랬는데…….”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랬으면 뭐하고 저랬으면 뭐하겠는가? 이랬든 저랬든 나에게 복될 것이 있느냐의 문제다. ‘사람에게 복될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좋다. 우리에게는 복될 것밖에 필요없다. 음식이 많다 해서 다 먹을 수 있겠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먹으면 된다.

풀밭에서 소가 풀을 뜯어먹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눈을 감고 풀을 뜯으며 지나간다. 윗니도 없이 풀을 뜯어먹고 가면서도 소는 자기가 죽을 풀은 안먹는다. 눈으로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을 것은 안먹는다. 소나 양이 풀 먹다 죽었다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그런 말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사람은 독버섯이나 독초를 먹고 죽은 사람이 있지만 짐승들은 그런 일이 없다. 풀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진 짐승은 풀을 구별할 수 있다. 풀을 잘못 먹고 죽을 일이 전혀 없다. 짐승들은 다 자기가 먹고 살 것만 먹도록 만들어졌다.

사람만 혼란스러워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다. 사상도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지 안될지 모르고 유행따라 흡수하거나 논리만 보고 흡수하다가 망한다. 잘못된 사상을 받았다가 멸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6.25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이 다 사상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이라 해도 볼 것만 봐야 되지 못볼 것을 보고서 설사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지금 못먹겠으면 안먹으면 된다.

어렸을 때는 젓만 먹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젓 외에 다른 것은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자라면 차츰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젓만 먹고는 못산다. 어렸을 때는 젓이 절대적이지만 어른이 되면 젓만 먹고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성경도 마찬가지니까 복이 안될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좋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복될 것만 붙잡으면 된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였다. ‘무엇을 창조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면 자기는 무엇이 되겠는가? 자기가 어찌될지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나의 근원을 찾으려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시발이 있어야 한다. 시작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생각할수록 좋다. 대통령이 창조했다고 해도 안된다. 왜냐하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얼마나 복된가!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다는 말만 들어도 복되는데 이 말은 얼마나 복된 말인가!

우리 한국 사람은 조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조상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인가가 중요했다. 여러분에게도 시조가 있을 텐데 시조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다. 그래서 후손들은 그 시조를 두고 “아무개 자손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옛날에 어른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고 “나는 전주 이가요.”라거나 “나는 경주 이가요.”라며 성만 말했다.

그것은 자기 집안이 서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조상이 소나 잡던 백정이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을 시조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도 우리 시조가 유명한 분이고 전능한 분, 훌륭한 분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전능자가 사람을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나를 포함하는 말이다. 나를 전능한 자가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만유의 시원이고 인류의 시원이며 인격의 시원이다. 계시와 역사의 기점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가 기점이다. 모든 계시는 여기서 시작되었고 역사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성경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역사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 사탄이 개입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위치를 이탈한 천사가 땅에 왔기 때문이다. 천사는 땅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다. 그런데 자기 위치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혼란이 생긴 것이다.

사람도 그렇다. 제정신으로 못살고 엉뚱한 정신이 들어오면 망한다.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대로 살면 다 잘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엉뚱한 사상이 들어서 사람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겠는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모두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예전에 동물원에서 큰 수족관에 있는 물개를 보았는데 청소를 하느라고 물을 다 빼버려서 그 큰 몸집을 한 물개가 거기서 뒹굴거리는데 불쌍했다. 물 속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고 유연하던 물개가 물을 빼버리고 나니까 몸을 주체를 못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뒹굴면서 어찌할 줄 몰랐다. 옛날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는 노래가 있었는데 물개를 그대로 두면 죽었을 것이다.

사람은 사람이 있을 데 있어야 하고 천사는 천사가 있을 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을 데 있어야 한다. 자기가 있어야 할 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사는 그 위치를 이탈해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긴 것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다. 땅에는 다른 것이 있어야 하

는데 천사가 와서 있으니까 혼란스럽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혼란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고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인간은 혼란스러워진다.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사람을 수천만 명을 죽여도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게 된다. 스탈린 치하에서 최소한 이천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얼마나 기술적으로 했는지 죽은 사람들이 스탈린이 자기들을 죽인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수천만 명을 죽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그것이 세상이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땅에,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이탈하면 안된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알 것이다.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한 군인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장한 탈영병은 사람을 죽이게 마련이다.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데 위치를 이탈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동장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동사무소에 손해가 오고 군수가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군에 손해가 온다. 대통령이 위치를 이탈하면 어찌 되겠는가? 나라가 망한다. 그 위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다. 그 위치에서 국가 간에 조약을 맺는다. 대통령이 조약을 맺으면 국민들은 그 조약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위치를 이탈하면 나라가 망한다.

사탄이 개입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땅이 물에 덮인 것처럼 되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은 땅이 깊은 물에 잠겼다는 뜻이다. 물이 깊으면 햇빛이 들어갈 수 없다. 캄캄하다. 깊은 물 속에 살고 있는 생물은 눈이 없다고 한다. 빛이 없으니까 눈이 필요없는 것이다. 그런 현상을 말한 것인데 이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사람이 혼돈해지면 어디까지 혼돈하게 될지 모른다. 이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히틀러의 지배 아래 있었다. 독일 국민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그들이 거의 다 히틀러를 지지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독일에서 기독교는 국교나 마찬가지인데 히틀러에 대한 지지율이 85%가 넘었다고 하니 상상이 되는가. 그들은 미친 사람을 지지했던 것이다. 그래서 본 웨퍼 같은 신학자는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술취한 운전사에게 차를 맡길 수 없다며 교수직을 그만두고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죽었다.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을 지지했던 것이다. 혼란이 되니까 그렇게 했지 제정신 같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대중의 생각이라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사탄이 개입하면 땅은 물에 덮인 것처럼 쓸모없어진다. 땅은 물에 덮이면 아무 쓸모가 없다. 농사도 못짓고 사람도 못살고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영으로 오셨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도 있을 데가 없었다. 땅에 천사들이 오락가락하면 하나님이 자리를 잡을 데가 없다.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사탄이 오락가락하면 하나님이 있을 데가 없게 된다. 엉뚱한 다른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들린다. 하나님이 오셨지만 들어오실 수 없는 것이다.

천사는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사람은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한다. 그래야 우주 질서가 잡힌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안되면 사탄이 와서 어떻게 흔들여 놓을지 모른다. 그래서 꼭 나라가 돼야 하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 보면 세상의 영화와 권세가 커서 뭔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만 뀌고 이유가 그것이다. 세상에는 굉장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에게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내놓는다는 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맡은 사람을 비밀의 역군이라고 했다(고전4:1). 세상도 좋아하고 교회도 되는 복음은 없다. 그런 것이 있다면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천사들이 어질러 버리면 하나님이 있을 데가 없게 된다. 천사들이 사람의 머리를 흔들여 버리면 하나님이 있을 데가 없어져 버린다. 아담이 그러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에 머리가 흔들렸던 것이다. 사탄은 “먹지 말라더냐?”라고 물었다. 아담이 “그렇다. 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셨다.”고 하자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못먹게 한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며 감언이설로 속였다. 그래서 아담이 먹게 된 것이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나 국민을 속이는 것이나 속이는 것은 전부 사탄의 계획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속지 말라고 한다. 속지 않으려면 실상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한다. 왜 불교가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힌두교는 다신교로 온갖 신들이 다 있다. 너무나 신이 많아서 그 신들을 다 섬기려면 사람이 정신이 없게 된다. 거기서 나온 것이 불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허

상이라고 한다. 허상이니까 버리고 실상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불교의 출발이고 원리다. 불교권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속고 있다. 하나님을 지으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놓고 전시하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이다.

왜 인생 문제가 생기겠는가? 왜 사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겠는가? 다 위치를 이탈해서 생긴 것이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내 위치에 있으면 생기지 않을 일들이다. 여러분의 위치가 회복되어서 제 위치에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 행복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만 위치를 이탈해도 원망과 시비로 인생이 가득 차 버린다. 그래서 물에 덮인 땅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남을 원망하느라고,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느라고 자기의 삶이 없는 것이다. 남이 잘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 삶인 것이다.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만 먹지 못먹을 것은 안먹는다. 왜 먹지 못할 것을 먹어 놓고 배탈이 나서 원망하는가. 못먹을 것을 먹어서 배가 아픈 것인데 “왜 이것을 여기 두었느냐?”고 원망하는 것이다. 먹고 살 것은 주셨으니까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다른 것을 먹어서 배가 아픈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에 원망이 생기면 자기가 먹지 못할 것을 먹었다고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먹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남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한다. ‘다른 사람도 다 먹던데. 나만 먹었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똑같이 회를 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한 사람은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 갈 수도 있다. 남이 먹는다고 먹을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도 먹기 때문이다. 남이 먹는다고 다 먹으면 안된다.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다. 식중독에 걸려 보니 시초를 닦는 무서운 병이 식중독이다. 나도 식중독에 걸려서 두 번 병원에 업혀갔다. 처음에는 설사가 나다가 다음에는 위로 넘어오더니 온 몸이 한기가 들어서 사시나무 떨 듯이 떨었다. 아무리 이불을 뒤집어써도 안된다.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았다. 옛말에 토사곽란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요즘은 약이 좋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죽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다 자기 입으로 잘못 먹었기 때문이지 남이 억지로 먹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지 남이 강제로 내 입을 벌리고 넣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배가 아프거든 무엇인가 잘못 먹었다고 알아야 되지 ‘이웃집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내 배가 아프구나.’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배가 아프면 잘못 먹었다고 알고 머리가 아프면 생각하지 않아야 할 생각을 했다고 알면 된다.

성경은 인생이 잘못된 것이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잘못되었으면 해결책이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잘못된 것이니까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실패한 셈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다. 어떤 신령한 영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신령한 사건, 신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금방 나온다. 사람들은 신적인 사건을 보면 환장을 하는 것이다.

나도 젊었을 때 그런 능력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됐다. 그래서 나는 버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신기가 나에게 왔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할 뻔했다. 무당까지는 아니라도 기독교 무당, 종교 무당이 될 뻔했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인격으로 살아야지 영기로, 신기로 사는 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과격한 말인 것 같지만 나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람은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살게 만들어졌다. 인격으로 사는 것이 정도지 신기로 사는 것은 사도(邪道)다. 어떤 방편이고 수단이고 기술이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전도도 잘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아주 편리할 것 같다. 그런데 근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뭐 하러 산 혼으로 만들어 놓았겠는가. 산 혼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인격으로 사는 것이 정도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것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는 분은 놓아 버리는 것이 좋다. 놓았다가도 옆에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 동요되고 만다. 나도 처음에 전도사로 나가서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다. 결국은 나로서는 떨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평생 가지고 있을 뻔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는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가? 물이 덮여 있기 때문이다. 물이 덮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신이 와 봤자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니 안 충만하니 하고, 더 받았느니 덜 받았느니 하지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 사람이 상의 성령은 될 수 없다. 성막에서 보았듯이 둥근 나무에 금을 입힌 것과 네모난 나무

에 금을 입힌 것과 판자에 금을 입힌 것은 용도가 다르다. 그런데 일단은 나무가 하나님의 용도에 맞아야 한다. 용도에 맞지 않는데 금만 입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더 큰일 난다. 가시가 영성한 것 위에 금을 입혀 놓으면 좋은 금인 줄 알고 가까이 하다가 찢리고 만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이 입혀지고 은이 입혀져야 되지 사람도 안됐는데 금부터 입혀 놓으면 안된다.

어디 가서 무엇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위험한 것이다. 그 사람은 아직 양상한 가시나무인데 거기 금을 발라 놓으면 무엇이 되겠는가? 그런 것은 성막에 쓸 수 없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한 나무 위에 금이 입혀지는 것이다. 나를 판자로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 금이 입혀져야 벽이 될 수 있고 나를 둥글게 깎아 놓았으면 거기 금이 입혀져야 채가 될 수 있다. 아무 데나 금을 입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신기를 부러워하면 안된다.

나는 그런 능력을 무지무지 사모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안주신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사람은 땅에 있어서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존재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안된다. 능력도 있어도 나라가 안된다. 자기들끼리 만나면 누가 능력이 더 있느냐고 하는데 나라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다. 땅에 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신 분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다.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왔을까? 이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밝혀 버리는 빛이지 햇빛 같이 물질을 보는 빛이 아니다. 물질은 누구든지 눈이 있으면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눈이 있어서 보아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그대로 있다. 이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한 그 빛이다(요일1:5).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7장과 8장과 9장이다. 거기에는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7장 37-38절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는 말이 나온다. 명절은 축제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절기다. 우리의 추석과 같은 것인데 역사적인 관계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날이다. 그날 축제를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할뿐이지 공허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공허한 사람들아, 뱃속에 똥밖에 없는 사람들아,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이 빛이다. 뱃속에 똥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빛이다.

사람에게 물질적인 똥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은 똥 같은 것만 꼭 차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만 가득하다. 먹어 놓은 것 때문에 시끄럽고, 먹어 놓은 것 때문에 싸운다. 먹어 놓은 것 때문에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나온다. 그것만 가득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이 흐를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것이 빛이다. 우리 속에 만일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당장 예수를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그것이 생수로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생수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내 뱃속에는 똥밖에 없구나. 원망밖에 없구나. 내 속에는 시기밖에 없구나.’라고 생각되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생수가 흐른다.

명절은 공허하다. 명절이 다 그렇다. 공허하다. 성탄절이 곧 돌아오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하다. 한달 전부터 집집마다 트리를 세우고 온 동네가 환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그런다고 예수가 오시는가? 예수가 없으니까 공허한 것이다. 와야 할 분이 안 오니까 공허하다. 신랑이 안오니까, 신부만 달랑 있으니까 공허하다. 그러므로 공허할 때 생수가 되신다고 하신 말씀은 빛이다. ‘나갈 길이 있구나. 우리가 살 길이 있구나. 원망과 시기와 분노밖에 없어서 그것들을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안되고 설사제를 먹어도 빠지지 않았는데 생수가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한 번 희망을 걸어볼만 하지 않은가!

목회하러 나갔지만 목회는 안되고 다른 교회는 복적거리고 뜨거우니까 무엇이라고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이래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무엇이래도 받아 보려고 좇아다녔던 것이다. ‘땡 잡는 것이 매지 사람이 안오는데 설교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내 성질에 안맞는 일이지만 일단 받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줄 것은 없고 공허하니까, 특별히 줄 것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이다. 공허한 명절이다. 우리는 공허한 명절에 살기 쉽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는 공허한 명절이다. 풍족하고 없는 것이 없이 별 것이 다 있지만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니까 공허하다.

8장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가 끌려와 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며 끌고 온 것이다. 그 여자는 죽을 길밖

에 없었다. 율법밖에 없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다. 여자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살게 되었다. 잘 아시는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으로 이 여자는 살아났다. 꼭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죽을 길 밖에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어느 경우에는 용서해 주라는 법이 없다. 여자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살았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으로 살아난 것이다.

이것은 잘했다는 말도 아니고 괜찮다는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살아났다. 이것이 빛이다. 이 여자에게 빛이 들어왔다. 캄캄한 암흑 속에 빛이 들어온 것이다. 길이 없는데 길이 왔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왔고 자유가 없는데 해방이 온 것이다. 이것이 빛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공허한 명절이 생수가 되고 죄로 죽을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내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살 길이 생긴다. 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로 죽을 길밖에 없는 인생에 살 길이 생긴다. 내가 그때 시골에 있을 때 조금 더 갔으면 어찌 되었을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무 것도 없이 되어서 죽자니 죽을 수도 없었고 살자니 살 수도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빛이 와서 내가 살아났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빛이다.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온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이다. 이것이 빛이다. 우리 인생을 되찾아 준 것, 이것이 빛이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내 인생을 찾아 주신 것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것을 예수께서 찾아 주셨다. 구속은 내 인생을 찾아 준 것이다. 잃어버린 내 인생을 찾아 준 것이 구속이다. 원점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나를 찾아 준 것이다. 이것이 빛이다.

어둠에서는 이것을 찾을 수 없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 아무리 ‘나는 누군가?’ 해 봤자 알 수 없다. 스님들은 이것을 찾느라고 평생을 노력한다. 우리 보고 그들처럼 ‘내가 누군가’를 찾아 보라고 하면 하겠는가?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한 분이 서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 위치를, 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것이 구속이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분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잃어 버린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다. 잃어 버린 인생을 찾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어진다.

왜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있지 않고 거기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동산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위치를 이탈한 천사도 있으면 안되고 위치를 이탈한 사람도 있으면 안된다. 하늘에는 위치를 이탈한 천사가 있으면 안되고 성막 안에, 에덴동산 안에는 위치를 이탈한 인간이 있으면 에덴동산의 평화가 깨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나가라고 하신 것이다.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추방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을 동산에 그냥 두면 동산이 엉망이 되고 마니까 할 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자기가 만드신 인간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 거지가 주인을 만나서 시집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모든 것, 귀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가지고 갈까 궁리하는 것과 같다. 거지보따리는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양을 보여 주고 가셨다.

예수는 누군가? 사람을 출생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시다가 사람으로 죽으신 분이다. 간단하다. 인생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것이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되도록 지어 놓으신 것이다. 신으로 지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지어 놓고 하나님 형상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살다가 죽을 때는 사람으로 죽어야 한다. 원래 사람인데 죽을 때 신이 되면 되겠는가? 그분은 사람으로 왔다가 사람으로 간 것이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데 사람으로 살 동안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야 한다.

모세에게 그가 바로에게 신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형상이 된다는 말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였다(고후4:4). 그를 두고 사람이냐 신이냐 하고 있는 것은 쓸데 없는 생각이다. 사람은 사람이고 형상은 형상이다.

전구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보통 때는 맑은 유리지만 전기가 들어오면 등이 된다. 거기서 유리와 빛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등이 빛이고 빛이 등이다. 예수를 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낸 분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겠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사람이다. 자기가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겠는가? 불가능하다. 종교적이든 무엇이든 자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 우리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누구나 사람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는 밝혀내지 못한다. 그러니 치료가 되겠는가?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 이것이 빛이다.

인생의 눈, 참 사람의 눈은 언제 열리는가? 하나님이 오시면 열린다. 우리는 예수를 보고 눈이 열린 것이다. 눈이 새롭게 열렸다. '아! 저것이 나구나. 저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나는 헛 것을 찾았었네.' 이렇게 되는 것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을 두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눈을 떠 보면 탄 사람이다.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탄 사람이다. 없어질 것, 벗어 버려야 할 것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가 나였고 우리였다.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불쾌했다. 내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나를 알아주면 좋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불쾌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를 보고 나니까 '나를 알아준 사람도, 나를 몰라준 사람도 헛일을 했구나. 나는 여기 있었구나. 진실로 나는 여기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 새로운 눈이 열린 것이다.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것을 그냥 지나갔을까? 나는 이것이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것들은 눈에 안보이는 것까지 다 연구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니 아들의 충성이니 하는 것들은 눈에 안보이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은 그냥 지나쳤는가! 다른 것은 다 인간의 해석이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도 해석이다. 내려오지 못한 것만 사실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것만 사실이다.

성서비평학으로 유명한 볼트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은 신화

고 어느 것은 무엇이고 하며 다 갈라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은 것만은 진실이고 사실이라 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것을 그냥 지나쳤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것은 평생을 산에 옆드려서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평생을 못먹고 먹입고 장가도 못가면서 알아보려고 해도 안되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쉽다.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너무 쉽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 있는가, 안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안해 주신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못해 주신 것이 있는가, 더 하라는 것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거기서 내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보다 밝은 빛이 어디 있는가! 초롱불을 켜고 겨우 보다가 전기불만 있어도 너무 밝은데 이 보다 밝은 빛이 어디 있겠는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빛 가운데서 새로 시작된다. 이것이 창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빛 가운데서 지어진 세계다. 이 빛이 없으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자연 창조밖에 모르는 것이다.

어떠한가! 이것이 빛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자. 무엇이 빛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본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빛이 없으면 못본다. 나를 찾고 싶어도 못찾는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찾겠는가.

빛이 없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고 이빨이 다 빠져버린다. 옛날에 빠빠용이라는 영화를 보니 그가 하도 탈욕을 하니까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가둬 버렸는데 거기서 몇 년을 살고 나니까 이빨이 다 빠졌다. 햇별을 못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빨이 하나씩 둘씩 빠졌던 것인데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다. 빛이 없는데 있으면 이빨도 빠진다. 그런데 빛이 오면 안보이던 것이 보인다.

날마다 나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남이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왜 화가 났던가? 무시하고 말 것도 없는데 왜 남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났던가?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무시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내가 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내가 있다. 그러니 너무 편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비위를 다 맞추고 살겠는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추고 살 자신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냥 살면 된다.

이 빛은 인격의 빛이다. 이것을 첫째날이라 하였다. 빛이 온 날, 이 날이 우리들의 첫째 날이다. 인격의 빛으로 오시면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방에는 재미있는 형제가 있다. 매일 쓸 때마다 ‘와 새 날이다.’라고 쓴다. 매일같이 새 날이라고 쓰는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아이고, 이놈의 날이 또 왔네.’라고 하면 불행한 일인데 ‘와~~~새날이다~~^^.’라고 쓰고 맨 끝에는 ‘In Christ……, 감사로 스타트~!!’이라고 쓴다. 박운봉 형제가 써 놓은 것을 보면 아침마다 새롭게 재미있다. 도를 닦은 고승이라도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다. 부처님 제자 중에 ‘와, 새 날이다.’ 하고 사는 제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이 많다. 새로운 눈이 열렸으니까 “와, 새 날이다. 오늘도 새 날이다.” 하는 것이다. 빛이 오면 세계가 달라져 버린다. 새로운 세계가 온다.

세 구절로 압축되어 있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인류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몇만 년이나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다. 이것은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똑같다.

“빛이 있으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째 날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격의 빛으로 오실 때 그 날이 우리의 첫째 날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그 해의 첫 달, 첫 날로 정했다. 그것이 유월절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첫 날이 있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누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 음력으로 오늘이 내 생일인 모양인데 이것을 정지영 자매가 사랑방에 올려서 소문이 나 버렸다.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니까 할 수 없이 음력으로 생일을 지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만세력으로 계산해서 양력 12월로 정했고 오늘이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첫날이다. 그런데 내가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오늘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첫날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른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려진 날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셨다. 내 인생의 첫째 날이다.

한철이는 항상 첫째 날이고 항상 그날이다. 한철이는 백 살까지 살아도 항상 그날이다.

항상 똑같은 날이니까 늙지도 않을 것이다.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찍던 날, 그날이 항상 한철이에게는 영원한 날이다. 대학 캠퍼스에서 형제들을 만나던 날, 그 날이 한철이의 첫날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다. 한철이를 보니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되지 쓰잘 데 없는 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번에 간증하는 것을 보니 한철이에게는 항상 똑같은 날이고 새로운 날이다. 틀림없이 백 살을 먹어도 이 날을 말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게 빛이 오던 날, 이날이 첫날이다. 비디오를 찍던 날이 한철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다. ‘이 복음을 전해야지.’ 하며 비디오를 찍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일생 살아 봐도 중요한 날은 며칠 없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날이 언제인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자. 아직도 중요한 날이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자기 인생에 잊지 못할 날이 있어야 한다. ‘그 날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날이 있어야 한다. 그 날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까! 많이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날이 있어야 오래 사는 것도 있지 이런 날이 없으면 많이 사나 적게 사나 똑같다. 노인당에 가 보서 물어 보면 그 오랜 시간을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같지도 않고 그날이 그날이니까 오래 산 것도 아니다. 말로는 오래 살았으니까 죽어야 된다고 노인네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 번도 안살았기 때문에 죽으려면 억울하다. 새 날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다.

우리에게 빛이 왔다. 나를 보는 눈이 생겼다. 인생의 눈은 하나님의 빛이 와야 그때 비로소 열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생명의 빛이 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빛이다.

또 말씀하셨다.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야 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머니 태로부터 왔다가 무덤으로 간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래서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고 하셨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분, 이분이 나에게 빛이다. 옛날에 우리는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신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다. 그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이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인생으로 죽으신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환영이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닫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는가! 하나님은 캄캄한 독방에 적어도 삼천 년을 계셨다. 동산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 혼자 계셨으니 얼마나 외로우셨고 얼마나 사람을 기다리셨겠는가! 오죽하면 그 문을 닫아 놓고 계셨겠는가. 인간들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니까 못들어오도록 막아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문이 활짝 열렸다. 새롭고도 산 길,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캄캄한 독방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지성소 그 캄캄한 방은 필요없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해방시킨다는 말이 그런 말이다.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갇혀 있어야 하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다. 하나님은 감방 생활을 하셨던 것이다. 지하 감옥 같은 데서 일 년에 겨우 한 번 피맛을 보고 사셨다. 아무도 못들어오니까 일 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뿌리고 오면 그만이다. 대화할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들어올 사람이 없었고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서였다.

제주에 가면 대문이 없이 담만 쳐 놓았다. 섬에는 도둑이 없으니까 담 옆에 나무 막대기를 걸쳐 놓고 표시를 해 놓아서 그것을 보면 멀리 갔는지 가까운 데 갔는지 알 수 있다. 도둑이 없으니까 대문이 필요없는 것이다. 그런데 육지에 나가 보면 대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철조망을 쳐 놓았다. 도둑이 있으니까 막아 놓은 것이다. 지성소를 왜 그렇게 캄캄하게 막아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겠는가? 도둑놈이 있으니까 막아 놓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도둑놈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이 열렸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진 것이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실재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랐다.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어떻게 터지겠는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 막힌 담이 터진다.

혹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보고 싶지 않아서 '저 사람 또 교회 왔네.' 하고 있다면 불행한 일이다. 교회는 가야겠는데 가자니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안가자니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안갈 수도 없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머리 아픈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간에 막힌 담이 열린 이 좋은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 막고 앉았으면 되겠는가? 왜 막혀 있는가? 구속 안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하는 짓이 아니다. 나는 옳은데 그 사람이 틀려서 보기 싫은 것이 아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막혀 있는 것은 똑같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오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여기 있다. 막혀 있는 사람은 터야 한다. 지성소도 열렸는데 무엇이 안열리겠는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힌 것이지 그 안에 오면 먹고 고운 것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다. 바깥에서는 다 달랐지만 이제는 다 하나다. 이번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다 터져야 한다. 가둬놓고 살면 안된다. 하나님도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자기 문을 안열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불행하고 괴로운 것이다. 사람이 보기 좋아야 되지 사람을 보기 싫어하면 괴롭다.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데가 좋은 데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문을 열어 놓으면 된다. 나만 열어 놓으면 저절로 다 열리게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힐 일이 아무것도 없다. 감정이고 기분일뿐이지 막힐 일이 없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증거가 참되다는 것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참된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세운다고 자기 증거가 참되다는 것이 증명되겠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모르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면 저절로 참된 사람이 된다.

나는 막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이 편하지, 막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잠을 못잔다. 몸이 약해서 잠을 자려면 나는 막힌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것도 좋은 현상인 것 같다. 만일 내가 속에서는 끙끙 앓으면서 잠만 쿨쿨 자고 있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막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잠이 안와야 정상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찾든지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다.

빛 가운데 오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진다. 인격의 빛 가운데 오면 우리가 해방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해방시키는 것이다. 화염검만 거둬버리면 에덴동산이 열리는 것이다.

교회가 동산이 되기를 바라고 열려진 지성소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